

감사원, 광주시 옛 신양파크호텔 매입 자료 수집중

“자료 수집이 곧 감사의 착수 의미 아니다” 확대 해석 경계 1981년 장원봉 인근 3성급 호텔 들어서...2019년 영업 중단

감사원이 광주 옛 신양파크호텔 매입 과정 등에 대한 각종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들이 지난 29일부터 시청에서 옛 신양파크호텔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자료 수집이 곧 감사의 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을 들여다 본 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감사 결정을,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 등 타시도에서도 해당 지역 일부 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1981년 무등산 장원봉 인근 1만6000㎡에 3

성급 호텔로 들어선 신양파크호텔은 국내외 귀빈들이 주로 묵는 광주의 대표 호텔이었다. 시설 노후화와 수익 악화로 2019년 말 영업을 중단했으며, 업체(컨소시엄) 측은 호텔부지를 포함해 2만5800㎡에 지하 3층·지상 4층 6개동 80여가구 규모의 고급 빌라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난개발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으며, 공유화 여론이 높아져 지난 7기 광주시는 담화문을 통해 부지 매입 방침을 확정·발표한 뒤 각계 전문가로 민·관·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광주시는 36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옛 신양파크호텔을 매입했다. 생태·체류·문화공간 조



광주 무등산 자락 내 옛 신양파크 호텔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성,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광주시는 현재까지

풍암호수 주민협의체, 새 회장 선출...수질개선 논의 재개 회장단 9~10월 내 수질개선안 도출 계획

풍암호수 수질개선안 이견으로 갈등을 겪던 주민협의체가 새 회장단을 꾸리면서 표류 중인 수질개선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광주 중앙공원1지구개발 주민협의체 등에 따르면 주민협의체는 최근 새 공동 회장을 선출했다. 회장직엔 협의체 주민 추천·투표를 통해 김용섭·진용경씨가 선출됐다.

회장단은 앞으로 새로운 풍암호수 수질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안 도출 과정에서 광주시·민간사업자와 협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회장단은 수질개선안이 마련되면 주민협의체에 주민 찬반 투표를 부쳐 오는 9~10월 안으로 최종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 수질개선안은 기존 제시된 절충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전 주민협의체 집행부·회장은 민간공원 사업자와 풍암호 녹조·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심을 현 수준인 2.5~3m로 낮추거나 유지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동안 ‘원형보존’ 입장을 고수해온 주민협의체 집행부는 수심을 낮추면서 수질개선을 하자는 쪽으로 한 보 물러나 민간사업자와 절충안을 만든 것이다.

주민협의체 형성 전 시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풍암호수 수질개선안 TP안은 풍암호 수심을 1.5m로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절충안을 두고 주민협의체 내부에서 ‘원형보존’과 ‘절충안 수용’ 두 편으로 의견이 나뉘어 최종안 도출 회의가 두달 간 파행을 겪었다. 기존 주민협의체 집행부도 사퇴했다.

광주시는 주민협의체가 최종 수질개선안을 제시하면 해당 안이 실현 가능한지 기술 검토를 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주민협의체의 수질개선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중재·정보 공개·운영 지원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시는 주민들이 신속 정확하게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시뮬레이션 등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노 광주시의회의원은 “시는 기존 TP안을 바꾸고 사업을 변경하는데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안이 타당하다면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풍암호 논의가 정제될 수 있지 않도록 중간자적 역할에서 협의체를 돕고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와 민간공원 사업자는 서구 금호·풍암·화정동 일대 중앙공원 1지구 사업 부지에 공원시설과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포함한 공원 부지 사업을 추진한 뒤 시에 기부채납한다.

서선욱기자

“안세영은 전남의 자랑 넘어 대한민국 영웅”...전남지사 축전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 여자 단식에서 한국 최초 금메달

김영록 전남지사가 나주 출신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에게 ‘전남의 자랑 넘어 대한민국 영웅’이라고 쓴 축전을 보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안 선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23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금의환향했다.

1977년 시작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단식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안 선수는 어릴 적 나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인 아버지를 따라 배드민턴 클럽에서 활동하며 소질을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영록 지사는 29일 안세영 선수에게 전남도민의 마음을 담아 축전을 보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최초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우승을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전남의 자랑을 넘어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키워주신 안세영 선수의 부모님께도 감사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전남도는 ‘2021~2023 코리아오픈 월드투



어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대회’를 비롯해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등 배드민턴 종목 발전과 도민의 생활 체육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9월1일 본격 운영 돌입

광주시는 광주기독병원과 함께 평일·휴일 밤 12시까지 경증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9월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지역에는 늦은 밤과 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어린이병원이 없어 아이가 아프면 응급실을 이용하며 장시간 대기과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광주시는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전문 진료와 응급실 연계진료도 가능해져 의료 취약시간대 소아청소년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위기를 맞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월3일 광주기독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광주기독병원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시범진료를 했다.

변용일기자

광주 가전공동브랜드 ‘GIEL’,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 간다

10개사 통합 전시관 구성...신규 바이어 발굴 및 판로개척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는 광주공동브랜드(GIEL·지엘) 기업들의 해외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IFA)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엘은 광주(Gwangju)+지능(Intelligent)+전자(Electronics)를 조합해 ‘광주가 생산하는 지능형 가전브랜드’다.

‘광주가 보증하는 스마트가전’을 의미하며 현재 32개사 51제품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제품들을 생산·판매한다.

광주TP는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지엘 기업들의 기술 및 사업화지원 등 기술경쟁력 확보 및 판매채널 다양화, 기업간 협업지원을 통해 우리지역 가전산업환경의 성장모멘텀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IFA 참여기업은 ▲썬이드엠 차량용 공기정정기 ▲티아피인터내셔널㈜ 공기정화기 수면유도등 및 두피케어 ▲썬감성 공기정정기 ▲누리오㈜ 소형공기 정화기 ▲썬유니컴퍼니 IR카메라 ▲대신전자㈜ 지동마사지 ▲썬명심메디칼 원격외진 온열기 ▲썬에스아이솔루션 이산화탄소 저감 공기정화장치 ▲제로웰㈜ 자연기화식 가슴기 및 미니 공기정정기 ▲썬리치룩스 LED감성조명 이다.

박람회 참여하는 민상은 썬이드엠 대표는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힘으로는 최근 급변하는 소비트렌드에 즉각 반응하기에 난항이 있다”며 “지자체와 광주TP가 판매채널 통로를 발굴해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와



구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TP 김영집 원장은 “지엘의 혁신제품들의 앞선 기술력과 도전정신이 우리지역 산업경제의 원동력 이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지역 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고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광주TP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최이슬기자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신원1호 태양광발전소	박선영	99.56	(1,211㎡/14,600㎡)
2. 신원2호 태양광발전소	최지영	99.56	(1,233㎡/14,600㎡)
3. 신원3호 태양광발전소	김가윤	99.56	(1,988㎡/14,600㎡)
4. 신원4호 태양광발전소	이준석	99.56	(778㎡/14,600㎡)
5. 신원5호 태양광발전소	박영실	99.56	(778㎡/14,600㎡)
6. 신원6호 태양광발전소	박정애	99.56	(778㎡/14,600㎡)
7. 신원7호 태양광발전소	박정미	99.56	(778㎡/14,600㎡)
8. 신원8호 태양광발전소	최현주	99.56	(778㎡/14,600㎡)
9. 신원9호 태양광발전소	최고은	99.56	(846㎡/14,600㎡)
10. 신원10호 태양광발전소	손영희	99.56	(830㎡/14,600㎡)
11. 신원11호 태양광발전소	류기진	99.56	(814㎡/14,600㎡)
12. 신원12호 태양광발전소	남현두	99.56	(798㎡/14,600㎡)
13. 신원13호 태양광발전소	㈜일양에너지이팅	99.56	(1,103㎡/14,600㎡)
14. 신원14호 태양광발전소	㈜유에너지	99.56	(1,887㎡/14,600㎡)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한국전력전선사업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원문 근무 시간에는 야근이 없습니다. 생활 속의 행복을 살리고 기쁘고 편안한 하루 만들어주세요.

국민 여러분께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